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복음	루카 3:15-16.21-22
--------	------	-----------------	------	---------------	----	------------------

◎ 말씀 <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은 취임에 앞서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예를들면, 대통령은 공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임식을 하고 주교님은 성성식(成聖式)을 거행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 사명을 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특별한 행사를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광야에 나타난 요한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의 말대로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요구에 응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라는 말이 하늘에서 들려 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세례를 받고서 아무 말 없이 단지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둘로 요약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요한의 선포와 요구가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다시말해, 요한이 선포한대로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세례 받으실 때 죄를 고백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사건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지만, 죄인을 냉정하게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 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깎박 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제1독서). 공생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분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억눌린 사람들을 보살피 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제2독서). 예수님은 죄를 피하고 회개하라는 냉엄한 말로 일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입니다. 냉엄함 보다는 따뜻한 말이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만을 강요하는 차가운 세상에서, 삶의 무게에 지쳐 허덕이는 이들이 그분안에서 거듭거듭 희망과 힘을 얻기를 기원해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 15일(화)	연중 제1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4,020.00 \$ 1,074.00
1월 16일(수)	연중 제1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성 소 후원 사회복지	\$ 240.00 \$ 160.00
1월 17일(목)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오후 7시 30분	성 물 방 기타수입	\$ 494.00 \$13,320.00
1월 18일(금)	연중 제1주간 금요일 일치주간(~25일)	오후 7시 30분	사제관건축 (교구론)	\$46,794.00
1월 19일(토)	연중 제1주간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합 계	\$ 66,102.00
1월 20일(일)	연중 제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4명 성인: 186명
교무금 봉헌자	김용문. 안선미(11-12월)이호영(7-12월)길성애(1-5월)김순녀. 이종만. 정춘자. 최준규(1-2월)장호길. 김형진. 최이주(12월)김선식. 김기환. 윤재경. 김은영. 류정임. 우순이. 구준모. 김채홍. 김광희. 남필레. 허형. 성영진. 임채봉. 김상돈. 최이주. 박을생. 이서향. 백정심. 지복원. 허용희. 김규대. 전기례. 이수동. 황호민. 엄용덕. 김영숙(1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매주 참여하는 미사

미사의 일반 구조

미사에서 신자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제가 주례하는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미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과 집전 사제의 인격과 당신 말씀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또 사제에 의해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계속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이뤄집니다. 이 두 부분은 긴밀히 연결돼 하나의 단일한 예배 행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말씀 전례에 앞서 시작 예식이, 성찬 전례 후에는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미사의 여러 요소

○ 하느님 말씀에 대한 봉독과 해설

미사에서 성경이 봉독될 때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은 하느님 말씀이 봉독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이므로, 성경이 봉독될 때 누구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해설인 강론을 통해 말씀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고 더욱 큰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평일 미사에도 강론을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사제가 담당하는 기도와 짧은 풀이

미사에서 사제가 담당하는 부분 가운데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는 성찬 전례에서 사제가 예물기도를 바친 후 팔을 벌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인사하며 시작하는 감사송에서부터 영성체 예식전 사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며 마침 영광송을 바치는 부분까지입니다.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체후기도 역시 사제가 바치는 기도인데 이 기도들을 ‘모음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회중을 이끄는 사제가 거룩한 백성 전체와 모든 참석자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례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사제는 시작 인사와 참회 예식 사이에, 그날 미사에 대해 신자들에게 짧막하게 풀이해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독서 전에는 말씀 전례에 대해 풀이해줄 수 있습니다. 파견 전에도 간단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례자가 기도하거나 말하는 동안에는 다른 기도나 노래를 해서는 안 되며,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를 연주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렛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손남산.루시아의 영혼	손창식.돈보스코	생	고공자.벨라렛다의 빠른 쾌유	장경숙.로사리오
연	이영식.프란치스코의 영혼	주동숙.모니카	생	박재홍.요셉	이나숙.데레사
생	(생일) 이영숙,데레사 영육간 건강	이영애.글라라 대녀가정	생	홍.세라피나,이.데레사 영육간 건강	아빌라회
			생	김화연.이시돌가족,김효주아네스가족의 영육간 건강	이호순.수산나

◎구석 하나가 말하다◎

구석 하나가 말하며 눈물을 찼끔찼끔 흘렸다.
 “나는 중심이 되고싶어요.” 그러자 벽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모두 중심이 되면 누가 구석이되어 나를 서 있게 하지?”

강은교.글라라.시인

간
장
종
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